

# '트럼프 초대장' 받은 K조선업의 현실

## 경제포커스



이인열  
산업부장

배를 짓는 독이 짙았다. 3년 치 예약도 끝났다. 국내 '빅3' 조선소의 현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원한다'는 발언으로 글로벌 명성까지 얻었다. 그런데 K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뚝뚝 떨어진다. 왜일까. 이유를 찾아 울산과 거제의 '빅3' 조선소 현장부터 가보자.

울산의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59척. 만석이다. 10개의 독 중 가장 큰 '제3독'에서만 LNG 운반선 2척, LPG 운반선 1척, 초대형 에탄 운반선 1척 등 4척이 건조 중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을 배의 목록도 정해져 있다. 거제의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인근의 중견 조선소인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도 빅3가 감당 못 할 물량 덕분에 대호황이다. 같은 중견 조선소인 케이조선(옛 STX 조선해양), 대한조선도 그렇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의 호황은 딱 여기까지다. 한국대 10개가 넘는 중견 조선소들은 '중국 쇼크'로 모두 문 닫았다.

K조선업의 수주 물량은 역대급 호황이던 2014년 수준인데, 세계 시장 점유

율은 10년 새 30%에서 17%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계 조선 시장이 66% 커졌지만 대부분 중국이 가져갔다.

조선 호황이 이어져도 우리의 점유율, 주도권은 갈수록 줄 것이다. 그나마 수혜도 빅3 정도에 국한되고, 노동자들도 점점 외국인인 많아져 내수 진작 효과도 제한적이다. K조선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의 청년 인구(20~39세)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감소세다. 2014년 7만7244명에서 지금 4만2925명이다. 청년들이 '바닷가 조

3년치 일감 밀려도 점유율 줄어 트럼프도 목매는 제조업에 후진국에 대물림해선 안 돼 '제조업 부흥'에 머리 맞대야

선소'를 외면하는 측면도 있다. 그 자리를 외국인인 채운다. 작년 말 거제의 외국인 거주자는 2년 전 대비 160% 늘어난 1만4969명이다.

생태계가 무너지니, 호황이라고 물량을 더 소화하거나, 조선소를 더 짓기도 어렵다. '트럼프 주문'이 오면 '새 치기'로 만들어줘야 할 판이다. 조선사들은 단골손님을 포기 못 해 곤혹스러워한다. 그나마 K조선업의 추가 투자는 해외에 짓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

았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조선업 연구개발(R&D) 인력 역시 한국은 고작 1300명인데, 중국은 14배인 1만8000명이다.

제조업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육체적 노동이 많고, 수익성은 낮아 흔히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대물림해주는 산업이라 한다. 한때는 조선은 물론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등도 소득 2만달러 나라는 안 한다는 게 불문율 같았다. 그래서 조선업도 영국,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왔던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어느 나라든 제조업 일자리 없이 성장엔커녕 현상 유지도 못 한다. 제조업을 서둘러 포기한 선진국들의 경제 성적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인은 "중국이 이미 시작한 산업은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로봇과 AI(인공지능)가 노동의 종말을 고할 거라 하지만 제조업 중요성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제조업 부흥을 외치는 몸부림이 이를 증명한다.

지금이라도 제조업을 어떻게 지켜낼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체할 방도들은 단골손님을 포기 못 해 곤혹스러워한다. 그나마 K조선업의 추가 투자

는 해외에 짓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

##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23]

### 다산이 거닌 길에 동백꽃 피는 시절

'산다화 맞닿은 잎은 추위에도 무성하고, 눈 속에 피어난 꽃은 학 이마처럼 붉어라.' 정약용(1762~1836)이 강진에서 3월에 지은 시이다. 그는 동백을 산다(山茶)라 하며 귀한 학으로 비유했다. 1801년 강진 유배지에서 맞은 겨울 근심 풀어 준 것도, 선달 전에 꽃피운 동백이라 했다.

동백 숲이 천연기념물인 강진 백련사 동백꽃은 겨울부터 피어나 춘삼월 만개한다. 꽃송이가 작고 붉다. 동백꽃 피는 시절 따라 며칠 전 살펴본 백련사 동백이 눈에 삼삼하다. 꽃은 덜 피었지만, 백련사 앞에서 동백 조화를 화사하게 단 배롱나무가 찾는 이를 반겨주었다. 꽃샘추위라지만 갈수록 꽃의 시간을 짐작하기 어렵다.

동백 숲을 산문처럼 두르고 있는 백련사는 연꽃 같은 봉우리가 아름다운

만덕산(萬德山)에 자리한다. 만덕산 일대에 야생 차나무가 많아 다산(茶山)이라 호를 지은 정약용은 열수, 사암, 여유당 등 여러 호를 지니고도 차향 품은 다산으로 널리 알려졌다.

1808년 봄이 되면서 정약용은 백련사 서편에 자리한 윤단의 산정(山亭)으로 거처를 옮긴다. 지금의 다산초당으로 유배 끝날 때인 1818년까지 머물렀다. 그곳에서 지낸 데에는 다산의 외가인 해남 윤씨 가문의 배려가 있었지만, 백련사에 있는 아암 해장 선사(1772~1811)와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듯하다.

다산은 아암의 초연한 삶을 예찬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다. 나이도 신분도 초월한 그들은 한방중에도 찾아올까 싶어 문을 열고 지냈다 한다. 아암이 술병을 얻어 입적하기 전까지 설레



국가유산청

며 다닌 길이 지금도 오토이 남아있다. 다산초당과 백련사는 도보로 40여 분 걸리지만, 그들의 흔적과 수려한 풍경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야 좋다.

볼물 드는 만덕산은 찾는 이에게만 가지 덕으로 그들이 나눈 풍경을 서서히 풀어내 준다. 오랜 세월 위안과 힘을 건네준 덕인지 최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이란 이름으로 명성이 되었다. 동백꽃에 더해 백련사 차향이 코끝에서 내내 땀땀다. 냉이 밭 나는 한바위 앞세우고 그들의 마음 따라 백련사 가는 숲길을 다시 걷고 싶다.



\*영상 QR코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자연유산유원

## 社 說

###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李, 할 말을 잇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직무유기이자 국헌 문란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경찰이나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아무나 당신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폭력 영화나 나올 법한 대사다. 이런 노골적인 협박과 극언은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일반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협박을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대표가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전막 농성장에서 열린 당 회의에 신변 위협 때문이라며 방탄복을 입고 나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최 대행이 위헌적 요소를 뺀 특검안을 요청하자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했다. "최 대행의 내란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시로 탄핵 겁박도

했다. 헌재를 향해서도 연일 대통령 신속 파면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 탄핵에 대해 늘 진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실제로 최 대행 탄핵 소추를 결정하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직무 정지가 된다. 대행대행 대행 체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이 온전할 수 있나. 국격과 신용등급도 추락할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르는 것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조급증 때문일 것이다. 오는 26일 2심 판결이 다가오자 그 전에 헌재 결정을 이끌어 내려고 온갖 무리수를 다 쓰고 있다. "몸조심하라" 협박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자신에 대한 재판은 한없이 지연시키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안달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법리에 어긋나지 않고 흠결이 없어야 한다. 헌재 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최 대행과 헌재를 공공연하게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국헌 문란이 될 수 있다.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도 해치는 일이다. 이 대표는 말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 대행에게 위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할 말을 잇게 만든다.

### 처벌 대신 정치적·금전적 이득 보는 괴담 유포

19일 소셜미디어에는 '한국판 킬링필드' '군, 시신 수송 가방 3000개 더 준비했다'는 자극적 글들이 올라왔다. 군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000개 구입했다는 MBC 보도를 근거로 했다. MBC는 "군이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계엄 때 유혈 사태를 고려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여준 씨는 "민노총, 정의구현사제단, 대진연 숫자 합쳐보면 족히 2000명은 된다. 대단히 수상하다"고 말했다.

군은 계엄 2년 전인 2022년 수립된 전시 대비 합참 지침에 따라 2024년 3000개, 2025년 3000개, 2026년 6000개, 2027년 6000개 추세로 영현백을 구매할 계획이었다. 작년 3000개 구매의 계약 공고는 5월에, 업체와 계약은 6월에 이뤄졌다. 그리고 영현백 납품은 계엄 이후에 이뤄졌다. 관련 예산은 계엄 이전에 국회 심의를 다 통과한 것이다. 군이 민간인 살해용으로 영현백 3000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저 악성 괴담일 뿐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이런 괴담과 음모론이 양산되고 있다. 김여준씨는 계엄 직후 국회에 나와 정치인 사살 계획과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복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제보를 우방국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은 "상당한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가 김씨 방송에 나가 사과했다. 김씨 국회 증언 이후 석 달이 지났고 사실로 판명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김씨는 아직 이를 사과하지 않았다.

탄핵 반대 측 역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인터넷 매체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는 현재의 평의와 관련된 각종 추측이 유포되면서 선고 이후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도 괴담과 음모론 유포자들은 처벌보다는 정치적·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외국인은 한국서 투표, 한국인은 외국서 투표 불가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고 국민회의 김미애 의원이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한국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에게는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다음 달 2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를 의뢰해 보니, 올 1월 말 기준 총 14만78명이 그 기준에 부합하더라는 것이다.

이는 이 제도가 처음 논의된 2000년대 초·중반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영주권자에게 처음 투표권을 부여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여 명에 불과했다. 총 선거인의 0.02%였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선거권자가 12만76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 후 약 3년 만에 그 숫자가 1만 2000여 명 더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자체 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표권과 같은 정책은 상대 외국과 상호주의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사는 우리 국민들은 상호주의에 기반한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도 호혜적 효과를 기대하고 한 일이었다. 우리가 먼저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재일 한국인 약 40만명이 영주권을 갖고 거주 중인 일본도 그들의 숙원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14만명 중 대부분인 11만3500여 명(81%)이 중국 국적이다. 민주당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자체를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표할 기회조차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 영주 자격에는 1년에 며칠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무 거주 기간도 없다. 외국에서 지내다 투표만 하러 입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대로 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 4대4 혹은 5대3으로 막아라

**정통 독립 법관들이여, 우리법 따위 밀어붙여라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실력 다 드러났다 문재인 이재명 수하에 불과하다**

**■ 현재는 오리무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제 어느 날 ▲인용 ▲각하 ▲기각할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무슨 사연 있는가?

속전-속결로 해치울 듯 내달던 **《우리법 재판관》**들이었다.

그러나 언제 선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어떻게 판결하느냐.

**■ 혁명의 속성 모르는 순진한 생각**

헌재 재판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들은 **《법률 수사학》**을 높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부활의 역사》**를 쓰느냐, **《망국의 역사》**를 쓰느냐의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다. 이 자의식으로 그들은 몸을 팔아야 한다.



▲ 좌측 4명(김형두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순에 대한민국의 문명이 달려있다. 우측 4명(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정계선)은 우리법 부류다. 정통 법관이기보다는 《사법운동권》에 가깝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그 **《종말의 종말》**의 출발점에 설 것이다. 아니라고?

인용된다 해도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또 대통령을 할 것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또 있을 것이라고? 이걸 **《혁명》**이라는 동화(勳勞)를 도무지 모르는 **《순진남》** 같은 소리다.

최근 역사만 돌아보라. 대한민국을 부정(否定)하는 **《NL 운동권》**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사실상의 실권》**을 잡게 되었는가!

**■ 사이공 최후의 날을 보라**

말기 증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발열(發熱)했다. 이걸 고비로 좌익 혁명세력은 **《교형리(絞刑吏)》** 자리에 올라섰다. 대한민국 주류는 **《수청대야 할 적폐》**로 전락했다. 세상이 완전, 물구나무를 선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물러 또 쫓겨나면 그 **《뒤집힘》**은 전보다 몇 배나 더 치참한 재앙으로 덮칠 것이다. 대한민국에 남은 면역력이라곤 더 있을 턱이 없다.

국가의 희망은 긴 기간 조금씩 누적된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화 발화(發火)한다. 그러곤 순식간에 외장창한다. 이게 **《혁명의 역학(力學)》**이다.

**《사이공 최후의 날》**을 보라. 남베트남은 긴 전쟁에서 조금씩 먹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적의 총공세! 북베트남군 장교가 남베트남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닥쳤다.

뿔만 대통령을 말했다. "나와 협의하자." 북베트남군

장교는 답했다. "당신을 체포한다!" 끝.

**■ 인용이면 민주민주주의 지옥문 열린다**

《1987년의 민주화》엔 자유주의자(①)들도, 5공 일부(②)도 참여했다. 《합의적 무혈 명예혁명》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① ② 뜻대로 가지 않았다. **《NL 운동권》** 뜻대로 갔다.

《노무현 → 문재인》시대, 《광우병 난동 → 박근혜 탄핵 → 윤석열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갈수록 더, 더, 더 **《민주주의》**로 급경사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뒤집힌 운동장》으로 넘어갈 판이다.

자유인들은 절규한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들이여! 자유대한민국의 문명이 귀하들에게 달려있다! 《4대4》《5대3》마지노선을 사수하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2025년 3월 19일 게재 되었습니다.

